

보도자료

2014년 8월 29일(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시청자지원팀 김종영 팀장(☎2110-1290)

손일만 사무관(☎2110-1297) sono01@kcc.go.kr

방통위, 울산광역시와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업무협약 체결

'16년 상반기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을 위해 재정·인력 지원 등 공동 협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8월 29일(금) 오후 2시 울산시청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이 참석하였으며 '15년도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에 관한 사업 설명에 이어, 업무협약 서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울산광역시는 울산시 북구 진장 명춘지구 부지면적 1,428㎡에 연면적 약 2,800㎡(약850평) 규모로 109억원의 예산(방송통신발전기금 50억, 시비 59억원)을 투입하여 방송제작 및 교육시설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 스튜디오, 녹음실, 편집실, TV조정실, 장애인방송 제작실, 장비대여실 미디어 체험관, 디지털교육실, 일반교육실, 영상자료실, 동아리·세미나실 등

이를 위해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와 울산광역시는 설립 공간 제공, 센터 운영 및 운영비 분담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관련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시청자가 미디어센터의 시설을 이용해 직접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방송시설·장비들을 대여하게 된다.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2005년 부산, 2007년 광주에 이어 올해 강원, 대전,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개관하였으며, 2016년까지 울산과 서울(성북)에 미디어센터를 추가설립하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강원, 대전, 인천 3개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문을 연 뜻 깊은 해로써 보다 많은 지역주민의 미디어 접근 기회와 참여를 보장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2016년부터 성공적인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붙임 :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계획(안) 1부. 끝.

【붙임】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계획(안)

□ 설립 개요

- 위 치 : 울산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96B 2N
 - ※ 울산 북구 지역은 공장 및 주거지대로 문화시설 및 주민편의 환경이 열악함
- 부지면적 : 1,428㎡ / 예상 연면적 : 약 2,800㎡



- 주요 특징
 -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단독건물
 - 스튜디오 및 다목적홀, 미디어체험관 등 미디어센터 시설 반영

□ 설립 예산

- 총 소요예산 : 10,900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계	비 고
방발기금	2,500	2,500	5,000	시설장비 구축, 설계비
시비 (울산시)	-	5,900	5,900	건물 신축(골조, 외장공사 등)
계	2,500	8,400	10,900	

□ 설립 일정

- '14. 9~11월 : 설계 (방송통신위원회)
- '15. 1~2월 : 건축 협의 및 시공사 선정 (울산시)
- '15. 3~10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울산시)
- '15. 12월 : 센터관련 시설·장비 구축 완료 (방송통신위원회)
- '16. 상반기 : 센터 개관 (방송통신위원회)